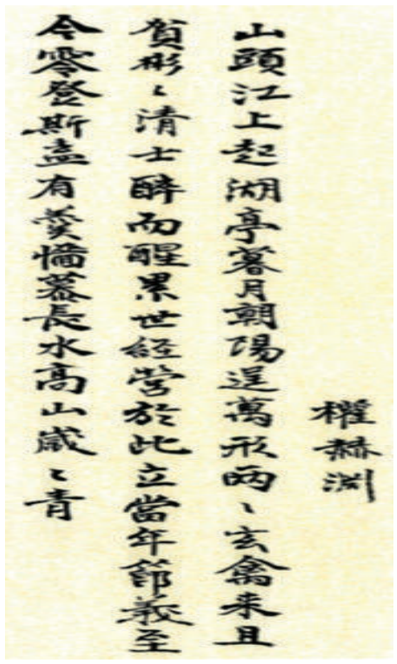
시연 칼럼 | 충절의 피로 쓴 역사

충절의 피로 쓴 역사, 詩가 되어 구호리 호암정에 흐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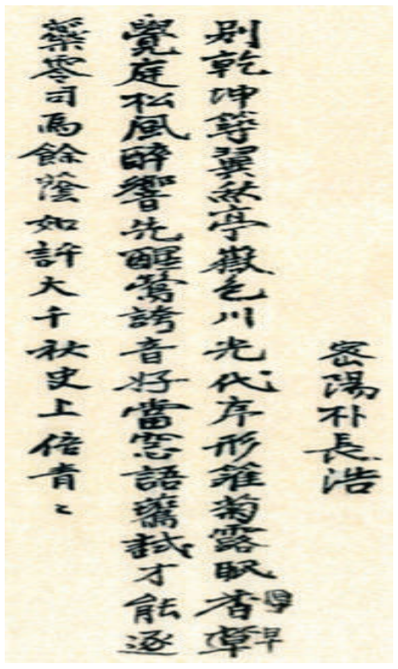


글 권영규
공학박사 위덕대학교 교무처장



[권혁연의 시]

산마루 강기슭에 호암정을 세우니
저녁 달 아침 해에 온갖 형상 펼쳐지네
쌍쌍이 제비는 날아와 또한 축하하고
빈빈한 맑은 선비들 취했다 깨어나네.
여러 해 경영하여 이곳에 정자 세우니
당시의 절의 지금까지 남아 있네
이 정자에 오르면 어찌 간절한 그리움이 없으랴
산 높고 강물 길게 흐르니 해마다 푸르리라



[박장호의 시]

별천지에 날 듯한 정자 세우니
산수의 풍광 계절마다 바뀌네
울 밑의 국화는 이슬에 잠들어도 향기 먼저 알고
정원의 솔은 바람에 취해도 소리 먼저 깨닫네
꾀꼬리는 고운 소리 봄내며 창가에서 지저귀고
제비는 재능을 시험하며 꽃잎 쫓아 내려오네
사마의 남은 음덕 이와 같이 크니
천추의 역사에 더욱 푸르고 푸르리라

지난달 종보(제616호)를 통해 우리는 임진왜란 당시 용궁 전투에서 장렬히 순절하신 의병장 문숙공(文肅公) 휘(諱) 응정(應定) 선조의 정확한 순절 일자(선조 25년 6월 15일)와 그 숭고한 생애를 역사적 사료로 확인한 바 있다. 400여 년 전 난세의 한복판에서 나라와 의리를 위해 목숨을 바친 선조의 충절은 과거의 역사 속에 묻히지 않았다. 그 뜨거운 충의(忠義)의 피는 후손들과 영남 유림의 가슴속에 숭모(崇慕)의 정신으로 살아 숨 쉬었고, 그 결실이 최근 경상국립대 신일권 교수의 완역으로 빛을 본 〈호암정유계시집(湖巖亭儒楔詩集)〉이다.

이 숭고한 결실의 배경에는 황지에서 발원한 낙동강 굽이와 연꽃처럼 우뚝 선 법방산(法方山)이 어우러진 유서 깊은 터전, 구호리(九湖里)에 호암정(湖巖亭)이 자리하고 있다. 승문원 부정자 황헌(黃憲)이 쓴 〈호암정기(湖巖亭記)〉에 따르면, 구호는 "안동 땅 산수의 빼어남 중에서도 단연 첫손가락으로 꼽히며, 마치 중국의 무이구곡(武夷九曲)과 같은 천혜의 비경"이라 평가받았던 곳이다. 전장으로 향하던 문숙공의 숭고한 충절이 서린 이곳에 후손들이 선조의 뜻을 기리고자, 호암정은 병오년(1966년) 8월에 상량(상량문은 13세손 권오종이 지음)하고 신해년(1971년) 4월에 완공식을 열어 건립되었다. 정자 완공 후 잔치를 열어 이날 모인 후손과 유림들이 지은 시를 모아 115수의 시문으로 엮은 것이 바로 〈호암정유계시집〉이다.

이번 시집의 해제가 날카롭게 짚어내듯, 수록된 시편 대부분은 호암정이라는 구체적 공간을 노래하고 있으나 그 본질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정신의 표상에 있다. 첫 수에서 "옛 현인의 꽃다운 자취 의당 오래 전하리(古賢芳躅宜傳久)"라 한 구절은 이 시집을 관통하는 핵심 의식을 드러낸다. 이후 여러 작품에서 반복되는 유촉, 계술, 청사, 송백, 종죽 등의 어휘는 모두 남겨진 자취를 이어 영원히 푸르게 한다는 상징구조 안에서 유기적으로 결합한다. 작품에서 가장 강하게 드러나는 주제는 선조의 충절과 의병 활동에 대한 추모다. 여러 시에서 창의, 순국, 충령, 보국정충 등의 표현이 반복되며, 특히 임란을 비롯한 난세의 의로운 실천이 강조된다. 이는 단순한 역사적 사실의 재현이 아니라 후손 공동체가 공유하는 도덕적 정체성의 재확인이다. "천추의 절의가 나약하고 완고한 자를 깨운다(千秋節義懦頑醒)"는 표현처럼, 선조의 삶은 과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일깨우는 윤리적 잣대로 기능한다. 이 시집이 반복적으로 청사에 남는다고 노래하는 이유는 역사에 기록되는 단순한 공적이 아니라 도덕적 모범이기 때문이다. 후손들은 정자를 세움으로써 선조의 삶을 공간화하고, 시를 지음으로써 그 정신을 언어화하니, 이 이중의 기록 행위야말로 잊히지 않음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준다. 나아가 이 시집을 지탱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축은 바로 후손들이다. 작품 곳곳에 운잉(雲仍), 자엽손지(子葉孫枝), 보수(寶樹) 등의 표현이 등장하며, 이는 자손의 번창과 가학의 계승을 상징한다. 특히 "선인의 뜻을 이어받고 그 일을 잘 서술한다(善繼人之志 善述人之事)"는 〈중용〉의 구절이 반복적으로 인용되는데, 이는 효를 통한 정신 계승의 원리를 분명히 한다. 정자를 세우는 행위는 단순한 건축적 성취라기보다 효의 실천이며, 후손들은 선조의 뜻을 계(繼)하고 그 일을 술(述)함으로써 자신들의 존재 의미를 확인한다. 따라서 이 시집은 혈연 공동체가 도덕 공동체로 확장되는 과정을 문학적으로 보여주는 위대한 기록이다. 이러한 공간과 정신, 그리고 후손들의 다짐이 조화를 이루는 대표적인 작품으로 구호의 강바람을 맞으며 호암정에 오른 후손들이 선조의 절의를 시로 되새길 수 있는 권혁연의 시를 꼽을 수 있다.

아울러 호암정을 둘러싼 국화 향기와 솔바람 소리 속에서 조상이 남긴 훌륭한 학문과 은덕이 천추의 역사 속에 푸르게 빛날 것임을 노래한 박장호의 시 또한 깊은 울림을 준다.

한문이라는 세월의 벽에 갇혀 있던 구호리와 호암정의 아름다운 풍경, 그리고 선조들의 고결한 숨결이 이번 완역 출간을 통해 비로소 오늘을 사는 후손들과 대중의 가슴으로 온전히 걸어 나왔다. 문숙공의 순절 사실을 바로잡은 역사적 고증이 우리의 뿌리를 확인하는 정립의 과정이었다면, 〈호암정유계시집〉의 완역은 그 뿌리가 내린 구호리와 호암정이라는 명승 위에서 피어난 정신적 자산을 미래로 이어나가는 소중한 이정표다. 무이구곡에 비할 수려한 구호의 기상과 시대를 뛰어넘어 푸르게 흐르는 호암정의 선비 정신이 우리 문중의 영원한 자부심으로 기억되기를 바란다.

〈호암정유계시집〉 완역 출판 기념회

아울러 이번 시집 발간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선조의 뜻을 기리기 위한 뜻깊은 자리가 마련된다. 다가오는 11월 28일 오전, 시제를 올리며 정성껏 준비한 시집 발간을 선조께 고하고, 이어 같은 날 오후에는 경북도청 동락관 세미나실에서 문중 분들과 지역 유지 여러분을 모신 가운데 〈호암정유계시집〉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가 후손들의 화합을 다지고 선조의 숭고한 충절을 다시금 되새기는 뜻깊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건강 칼럼 | 권영훈 한의사

땀 잘 안 나는 계절, 디스크 조심을

사람은 누구나 생활 양상이 비슷해서 별로 사용하지 않는 허리나 등의 근육을 지나치게 사용했을 때 허리통증이 오면서 시일이 경과되어도 낫지 않으면 특별하게 다치지 않고도 디스크 증세가 나타난다.

평상시 별로 하지 않던 작업이나 집안일을 과로하게 움직여 무리를 한다든지 몸의 상태가 좋지 않을 때 가볍게 세수물을 버리다가도 허리가 뜨끔하면서 허리 통증을 일으키기도 한다. 이런 증세가 오래 가게 되면 특히 땀이 잘 나지 않는 때는 디스크 증세가 되기 쉽다. 이렇게 쉽게도 느끼는 요통(腰痛)의 소인(素因)을 나누어 보면 원인 또한 다양하다. 어린이나 청소년은 요통이 비교적 적은 편이나 몸의 이상으로 감기 몸살 등의 열이 수반될 때 허리의 통증이 생기며 성인의 경우 나이를 먹을수록 허리가 아픈 증상이 수시로 따르게 된다. 또 노인의 경우는 관절이나 뼈 척추 등 퇴행성(退行性)이 쉬운 때에, 체중을 허리에 싣고 다닌다는 말처럼 힘들고 견디기 어려울 때 요통이 오게 마련이다. 현대인들의 생활 중 허리에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는 시간은 누워서 잠을 청할 때 정도일 것이다. 그러므로 수십 년간을 한결같이 허리를 무리하면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건강한 사람이라도 인체에 이상이 생기듯이 제일 힘을 많이 받는 하요추(下腰椎)에 이상을 느끼게 된다.

한편 여성의 경우 골반 내에 생식기를 보호하고 있는 곳이므로 생식기의 고장을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중년기의 여성은 생식기의 이상보다도 활동이 많아서 피로가 겹쳐 생기는 수도 있고, 반대로 안일한 생활로 운동이 부족할 때 순간적인 무리가 요통을 유발시키기도 한다.

한방에서는 이 모든 허리 아픈 증세를 '身' 및 '腎'자를 인용, 요통이라고 한다. 즉 몸이 허약하면 발생한다는 것과 신장 기능이 약해져서 생긴다는 것으로, 이 두 가지 모두 상통한다고 하겠다. 이 모든 증세가 건강 안배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데서 기인한다는 것은 상식적인 것이라 느껴질 것이다. 치료에 있어서 한방의 '순혈익기지제(順血益氣之劑)' 활용은 물론, 침술 치료가 바람직하다.

필요 이상의 단백질은 살찌는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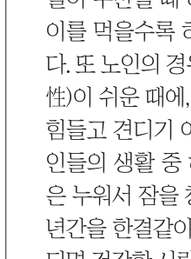
우리 인간의 생활 중에는 신경 써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다. 그중에서도 체중이 늘지 않아 고민하는 일도 있고, 체중이 너무 잘 불어서 모종의 병변(病變)까지 유발되어 적잖은 신경을 쓰기도 한다. 살이 찐다는 것은 오직 지방이 피하(皮下) 등에 침착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으로 운동선수 등의 근육이 단련으로 굵어지는 것은 살이 찐다고 하지 않는다. 또 피하에 지방이 쌓이는 것은 지방질만을 필요 이상으로 먹기 때문이 아니고 지방을 포함한 전체 칼로리를 필요 이상으로 섭취하기 때문이다. 필요 이상이라는 말은 소비하는 칼로리에 비해 섭취하는 칼로리가 더 많다는 의미이다. 탄수화물이나 단백질도 체내에서 지방질로 변화하는 것으로 많이 먹지 않더라도 소비하는 에너지가 적으면 서서히 살이 찐다. 같은 양을 먹더라도 활동이 적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체중이 느는 것도 이 때문이다.

더욱이 지방분은 탄수화물과 단백질에 비해 대개 2배의 칼로리를 낸다. 예를 들면 빵 한쪽에 얇게 버터를 발라도 칼로리는 2배가 된다. 뚱뚱한 사람이 흔히 아침식사로 빵 한쪽에 차 한 잔만 하여도 체중이 줄지 않는다는 것은 대개 양은 작아도 칼로리가 높고 지방분이 많은 식사가 되기 때문이다.

한방에 '비택혈분유여 수척혈분부족(肥澤血分有餘 瘦瘠血分不足)'이라는 말이 있는데 글자 그대로 뚱뚱하고 윤기나는 사람은 혈분이 충분해서이고 마르고 수척한 사람은 혈분 부족이라고 하였다. 역시 비만형은 40~50대 중년기에 많이 나타나므로 병의 소치인 당뇨병이 유발되기 쉬워 아주 염려된다. 반면에 마르고 수척한 체질은 질병이 없이 체중 변동의 기복이 생기지 않는다면 장수의 체질이라 할 수 있다.

늙어서도 마른 할아버지 할머니가 체질 변동 없이 여생을 보내기 때문에 수(壽)를 하게 마련인데 대개 마른 체질이지 살찐 노인은 거의 없다. 중년기에는 체질 변동이 없도록 한방의 '보양섭생(補養攝生)'이 무엇보다 가장 바람직하다 하겠다.

백록서원 추계향사 봉행



2026년 10월 26일 11시에 충북 청주시 옥산면 환희3길 38-20 백록서원(白綠書院)에서 병오년(丙午年) 추계향사가 봉행되었다.

백록서원은 시조 후 21세 휘(諱)는 상(常), 자(字)는 길재(吉哉), 호(號)가 남강(南崗) 선생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1710년(숙종 36년) 남강의 다섯째 아드님 충정공의 둘째 아드님이신 도사공(都事公, 휘諱 필중必中) 문중 및 지역 유림들이 창건하여 남강 조부님의 위패를 모시었다.

영조 36년에 청주시 월오동에 있는 봉계서원(鳳溪書院)으로 합사하였다가 1871년(고종 8년)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봉계서원이 철폐되었다, 그후 도사공의 후손이신 32세 와규공(卨奎 公)이 1929년에 백방으로 나서 청주지역 유림들과 옛 자리에 백록서원 사당을 다시 세우고 일명 "남강사(南崗祠)"라고도 하였다.

지금의 서원은 1929년 다시 세운 사당을 1966년에 보수한 건물로 정면 3칸, 측면 2칸 홑처마 팔작지붕의 목조 기와집이다. 내부는 통칸 양회방에 3개의 쌍문을 달고 앞퇴를 두었으며 "경효사(景孝祠)"라는 현판을 걸었고 마당 앞으로 솟을삼문을 세우고 담장을 둘렀다. 2015년 4월 17일 청주시의 향토유적 제96호로 지정되었다.



남강 선조는 후손들에게 심중대덕경세언인(心中大德經世彦人) 8자로 유훈(遺訓)을 내리셨고 후손들 항렬자(行列字)로 쓰도록 하였다.

청주향교 및 유도회 청주지부 관계자분들이 버스를 대절하여 참석하였고 도사공 종회 권영무회장을 비롯한 많은 남강공 후손들이 참석했다.

남강공 15세손(시조 후 35세손) 권규택

안동권씨서울지역종친회, 제22회 포은문화제 현장 참배

정몽주 선생의 충절을 기리고 종친 화합 다져… 15개 안동권씨 파 단소 순례도 추진



안동권씨서울지역종친회(회장 권영복, 좌윤공파 34世)는 2026년 10월 11일 오전 11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에 있는 포은 정몽주 선생 묘소를 찾아 제22회 포은문화제 현장 참배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회원 약 20명이 참석해 고려 말 충신 포은 정몽주 선생의 충절과 선비정신을 되새기고 종친 간 친목과 화합을 다졌다.

수십 년 이어 온 사적지 참배 전통

안동권씨 서울지역종친회는 마포종친회에서 출발해 수십 년 동안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사적지를 찾아 참배하고, 선조들의 정신과 역사를 배우며 회원 간 유대를 다져 왔다. 이번 포은문화제 현장 참배 역시 역사와 전통을 함께 나누고 종친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는 자리였다.

참석자들은 포은 정몽주 선생의 묘소를 찾아 고려 왕조의 마지막을 지킨 충신의 절개와 신념을 기렸다.

아울러 선조들의 삶과 정신을 오늘의 시각에서 되새기며, 역사문화유산을 보존하고 후대에 전승하는 일의 중요성에도 뜻을 모았다.

고려 말 삼은, 포은 정몽주의 충절

포은 정몽주(圃隱 鄭夢周, 1337~1392)는 고려 말의 대표적인 유학자이자 정치가로, 고려 왕조에 대한 충절을 지키다 선죽교에서 피살된 인물이다. 후대에는 목은 이색(牧隱 李穡), 포은 정몽주, 야은 길재(冶隱 吉再)와 함께 고려 말 삼은(麗末三隱)으로 불리며 절의와 충성의 상징으로 기억되고 있다.

포은 선생의 생애와 정신은 단순히 한 왕조에 대한 충성에 머물지 않는다. 자신이 옳다고 믿는 원칙을 지키고, 시대의 격변 속에서도 학문과 신념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오늘날에도 역사적 성찰의 대상이 된다. 이번 참배는 그러한 선비정신을 되새기는 계기가 됐다.

제22회 포은문화제, 620년의 역사를 잇다

2026년 제22회 포은문화제는 포은 정몽주 선생의 삶과 정신을 기리고 전통문화를 시민과 함께 나누는 역사문화축제다. 올해는 포은 선생 묘소의 천장 620주년을 맞아 '포은의 숨결 – 620을 잇다'를 주제로 10월 10일부터 11일까지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포은 선생 묘역 일대에서 열렸다.

행사에서는 천장행렬과 추모제례를 비롯해 기념식과 축하공연, 용인시 민속예술제, 전국청소년국악경연대회 입상자 공연 등이 마련됐다. 또한 포은 스쿨과 전통문화 체험, 시민참여 프로그램 등을 통해 시민들이 역사와 전통예술을 직접 배우고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안동권씨 서울지역종친회 회원들의 현장 참배는 이러한 역사문화축제의 취지에 동참하고, 선현의 정신을 기리는 실천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15개 파 파조 단소 순례 제안

이날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앞으로 안동권씨 15개 대파의 파조 단소를 차례로 찾아 참배하는 여정을 마련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각 파의 파조와 선조들의 자취를 직접 살피고, 종파별 역사와 유적을 함께 배우자는 취지다.

안동권씨는 여러 대파로 이어지는 유구한 계보와 지역별 문중 전통을 지니고 있다. 각 파의 단소를 순례하는 사업이 추진된다면 종친 간 교류를 넓히는 동시에, 흩어져 있는 문중 유적과 관련 기록을 조사하고 정리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15개 대파의 파조와 단소 소재지를 정확히 확인하고, 각 파종회와 협의해 참배 일정과 역사 해설 자료를 마련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단순한 방문에 그치지 않고 사진과 문헌, 현장 기록을 축적한다면 후대 종친을 위한 역사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역사를 잇고 화합을 다지는 종친회로

안동권씨 서울지역종친회는 이번 포은문화제 참배를 통해 선현의 충절을 기리고, 수십 년 동안 이어온 사적지 참배 전통을 되새겼다. 앞으로도 역사문화유적을 함께 찾아 배우고 종친 간 소통을 넓혀 나간다는 데 의미가 있다.

권영복 회장은 좌윤공파 출신으로, 종친회의 역사문화 활동과 화합을 이끌고 있다. 종친회는 이번 참배를 계기로 더 많은 회원이 사적지 탐방과 선조 유적 순례에 참여해 종중의 역사와 전통을 함께 이어가기를 기대하고 있다.

선조를 기리는 일은 과거를 돌아보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그 정신을 오늘의 삶에 되살리고, 후대가 기억할 수 있는 기록과 실천으로 남기는 일이다. 포은 선생의 묘소에서 시작한 이번 참배가 안동권씨 15개 대파의 역사와 선조들의 발자취를 잇는 새로운 순례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글 권오철 기자